

호주, 곡물수급 및 가격 전망

권 오 복*

호주에서는 2006년 극심한 한발로 곡물 생산이 크게 감소하여, 2007년부터 회복세에 있다. 2007년 호주 농업전망대회에서 발표된 ‘호주의 곡물 전망’을 요약 정리하였다.

2006~07년 동계 곡물생산을 크게 감소시킨 극심한 한발이 여름까지 이어져 하계작물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12월 초에 비가 내려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즈랜드 북부지방에도 수수가 파종되었다. 그러나 이후 강우량이 적어 퀸즈랜드 중부지방을 제외하면 이때 파종한 수수가 발아되지 않았고 이전에 파종된 수수도 단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 때문에 2006~07년 호주의 수수 생산량은 이전에 비해 50%가 감소한 100만 톤에 불과하였다.

1. 호주의 동계작물 생산 회복 전망

2007~08년 호주 곡물 산업을 전망하는 데에는 호주 기상청의 최근 기후 전망을 고려해야 한다. 2007년 2월 21일 호주 기상청이 발표한 가장 최근의 엘리뇨 예보에 따르면 2006~07년 엘리뇨가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상청은 엘리뇨가 끝났다고 해서 한발이 끝나고 강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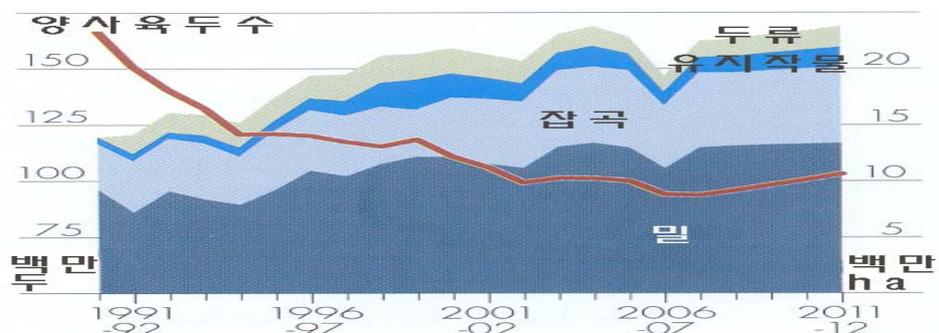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bkwon@krei.re.kr 02-3299-4210

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한발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정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에 걸쳐 넉넉한 강우량이 필요한 동부 및 남부 호주의 일부 지역 물 공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호주 기상청은 2007년 2월 22일, 3~5월간의 계절 강우 예보에서 강우량이 특별히 많거나 가물지는 않는다고 예보하였다. 호주 남부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앞으로 3개월간 중간 정도의 비가 내릴 확률이 50% 이상이다.

호주 기상청의 일기 예보를 평균적인 계절 기후로 사용할 경우 2007~08년 동계 작물의 파종면적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2006년 하반기에 한발이 극심해지자 대다수 축산농가가 사육두수를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2007년 대체입식을 위한 가축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농민들은 단기적으로 농가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늘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2007~08년 동계 곡물의 식부면적은 전년대비 15% 가량 증가한 2,140만 ha에 이를 것이다.

여러 작물의 파종면적은 가을철 강우량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계절이 늦게 시작되면 캐놀라와 두류 파종면적은 감소하는 대신 밀과 보리 파종면적은 늘어날 것이다. 물론 작물의 운작 요인도 개별 생산자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1 호주의 주요 품목별 경작면적 및 양 사육 두수 추이



2007~08년 호주의 밀 파종면적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300만 ha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보리, 캐놀라, 두류의 파종면적은 전년대비 각각 17%, 10%,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조건을 중간정도로 가정하면 동계작물 생산량은 한발의 피해를 입은 2006~07년 수확량인 2,270만 톤 보다 훨씬 많은 3,84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 밀 수출은 증가할 듯

2006~07년 호주의 밀 수출은 전년에 비해 16% 감소한 1,27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05~06년산 재고가 현재 수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되고 있다.

2007~08년 밀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호주의 밀 수출은 300만 톤 정도 증가한 1,6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액도 전년대비 21% 증가한 38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호주 밀 수출 유통체계가 변해도 밀 수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였다. 호주의 밀수출유통위원회는 밀 수출유통의 미래에 대해 생산자들과 협의중이다. 동 위원회 보고서는 2007년 3월말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장차 호주의 밀 수출유통정책을 손질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3. 보리 수출, 증가 전망

2006~07년 호주의 보리 수출은 약 40% 감소한 310만 톤이 될 전망이다. 같은 해 잡곡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27% 하락한 8억 6,500만 달러로 추산된다. 2007~08년 호주의 보리 수출은 한발로 피해를 입은 2006~07년 수출량보다 48% 증가한 460만 톤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2007~08년 호주의 보리 수출액은 수출량의 증가와 수출가격 호조로 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호주 곡물 가격은 하락할 듯

2006~07년 호주 및 다른 지역의 한발, 그리고 밀과 잡곡의 국제 재고의 감소로 곡물 가격이 호주는 물론 세계적으로 상승하였다. 2006~07년 밀의 톤당 수익은 전년에 비해 51달러가 늘어난 242 호주 달러가 될 전망이다. 같은 해 사료용 보리와 캐놀라의 톤당 가격은 전년에 비해 각각 83 호주 달러, 181 호주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들의 톤당 가격은 각각 270 호주 달러, 567 호주 달러로 전망된다.

2007~08년에는 가뭄에 따른 공급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생산이 상당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곡물 가격도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2007~08년 톤당 호주 밀 가격은 전년보다 26달러 낮은 216 호주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사료용 보리와 캐놀라의 톤당 가격도 전년에 비해 각각 25%, 20% 하락한 202 호주 달러, 454 호주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5. 호주 곡물의 중기 전망

중기적으로 호주의 곡물과 채유종실류 식부면적은 2,000만 ha 이상을 웃돌다가 2012년까지 2,400만 ha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07년 호주의 곡물과 채유종실류 재배면적은 지난 9년간 가장 작은 면적인 2,000만 ha 이하를 기록하였다. 2007~08년 식부면적은 농민들이 2006년 가뭄피해로부터 벗어나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호주에서 경작지에 대한 경합은 주로 양 산업(sheep industry), 특히 밀 재배~양 사육 지역으로부터 온다. 중기적으로 볼 때 호주의 양 사육 두수는 사

육농가들이 2006년 가뭄 시 줄였던 양의 사육을 다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1~12년까지 호주의 양 사육 두수는 가뭄이전 수준보다 300만 두 많은 1억 300만 두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두수는 1990년대 초반보다는 적은 것이다.

중기적으로 작물 식부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작물 구성은 개별 생산자들의 윤작과 개별 곡물의 상대가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1~12년 곡물과 채유종실류 생산량은 4,700만 톤에 달할 것이다. 2011~12년 호주의 밀, 잡곡, 채유종실류 생산량은 각각 2,800만 톤, 1,400만 톤, 1,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약적인 호주 축산업이 점점 더 확대됨에 따라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사료 곡물의 수요가 공급을 밀돌아 호주가 계속해서 곡물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자료

Amelia Brown, Leanne Lawrance, and Vince O'donnell, "Grain", Australian Agriculture, Australian Commodities Outlook 2007, ABARE, pp. 27~41. 발췌정리